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성경: 요 21:15-17, 10:10-11, 16, 행 20:20, 31, 벰전 2:25, 5:1-4, 히 13:20-21

**I.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 A. 요한복음은 스물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20장에서 끝난다. 이 책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룬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안의 사람이 되신 것으로 시작해서(요 1:1, 14),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으로 끝마친다(20:22, 고전 15:45하). 따라서 21장은 부록이다.
- B. 비록 이것이 정확한 말이지만 좀 더 내재적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사도들의 사역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한다.

**II.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 주셨다. 이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양들(이방인들)을 얻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처음 양들(유대인 믿는 이들)과 함께 결합하여, 한 목자 아래서 한 양 떼(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A. 먼저, 주님의 목양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다 — 마 9:36, 10:1-6.
- B. 둘째로, 주님의 목양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으며(벰전 5:4),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III. 주님은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중 한번은 이 부록에서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동안에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베드로에게 위임하셨다 — 요 21:15-17.**

- A.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양 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이다.
- B.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것을 확증해 준다.
  - 1.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 행 20:28.
  - 2. “...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행 20:29.
  - 3.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안의 하나님께서” — 히 13:20.

**IV.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다.**

- A.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

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말하였다 — 벰전 2:25.

- B.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권하였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 벰전 5:1-4.
- C.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의 의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벰전 5:1-2.
  - 1. ‘하나님을 따라’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일 때,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며,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
  - 3.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함을 따라, 곧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를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 4.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사람의 선호와 흥미와 목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 D.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V.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V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적과 궁극적인 완결을 위해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문제는 아가에서도 언급된다.

- A.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만족을 위해) 양 치는 곳과 (안식을 위해)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 아 1:7상.
- B.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 아 1:8하.
- C.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 아 2:16.
- D.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 아 6:3.

VII. 이러한 부록인 21장이 없다면, 요한복음은 적절하고 완전한 결론을 갖지 못한다.

- A. 목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공허한 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때에만 요한복음을 내재적인 방식으로 알 수 있다. 목양이 요한복음을 열어 주는 열쇠이다.
- B.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반드시 목양하는 길을 취해야 한다.
  - 1.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양 떼의 본이 되어야 한다 — 벰전 5:3.
  - 2.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노예가 되기를 자원해야 하며, 성도들보다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
  - 3. 장로들은 서로 목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몸의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성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일에서, 각양 방식으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한다.
5.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을 접촉하고 방문하며, 우리 가정에 식사 초대를 해야 한다.

**VIII.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사역에서 보여 주신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 — 마 9:36, 요 10:11.**

- A. 누가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삼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밝혀 주셨다.
  1.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는 일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 눅 15:1-10, 17-18.
  2.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구주의 목양하고 찾는 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이다.
  3.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어야 한다(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야 한다) — 마 9:10, 눅 7:34.
  4.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양해야 한다(세 단계의 사역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 — 마 24:45-47.
- B. 그리스도는 재판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마 8:2-4), 중풍병 환자들(5-13절, 9:2-8), 열병에 걸린 사람들(8:14-15), 귀신 들린 사람들(16, 28-32절), 온갖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16절), 멸시받는 세리들과 죄인들(9:9-11)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오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재조성하시어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 마 9:12-13.
- C. 주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야 했는데, 그것은 부도덕한 한 여인을 얻으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그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심으로써 그녀를 소중히 보살피셨는데, 이것은 생명수로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그녀를 보양하시기 위해서였다 — 요 4:3-14.
- D. 죄가 없는 분이신 주님은 간음한 여인을 유죄 판결하지 않으시고, 법리적으로 그녀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유기적으로 그녀의 죄들에서 해방하심으로써 그녀를 소중히 보살피셨다 — 요 8:1-11, 32, 36.
- E. 주님은 단지 세리장 한 사람을 방문하여 얻으려고 여리고에 가셨으며, 주님의 복음 전파는 일종의 목양이었다 — 눅 19:1-10.
- F. 주님은 아이들에게 안수하심으로써 그들의 부모들을 소중히 보살피셨다 — 마 19:13-15.
- G.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구원하신 첫 번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였다 — 눅 23:42-43.
- H.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가슴에 금띠를 두르시고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시며 보양하고 계신다 — 계 1:12-13.
- I.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실 것이다 — 히 13:20-21.

**IX. 사도들은 그들이 전파한 기쁜 소식의 본이었다 —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살전 1:5하.**

- A.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러하다 — 요 5:19, 6:57, 빌 1:19-26, 행 20:18-35, 마 7:17-18, 12:33-37.

- B. 우리는 사도들의 본을 따라 일보다 생명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요 12:24, 고후 4:12.
- C. 바울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목양했다 — 살전 2:7-8, 11-12.
- D. 바울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행 20:20) 에베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삼 년 동안이나 눈물로 성도들 각 사람을 훈계하며(31, 19절),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27절) 그들을 목양했다.
- E. 바울은 믿는 이들에 대한 친밀한 관심을 가졌다 — 고후 7:3, 문 7, 12.
- F. 바울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수준에까지 내려갔다 — 고후 11:28-29, 고전 9:22, 비교 마 12:20.
- G.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가 가진 것, 곧 그의 소유물을 기쁘게 소비하고, 그의 존재, 곧 그 자신까지도 기쁘게 소비하고자 했다 — 고후 12:15.
- H. 바울은 전제물, 곧 포도주를 생산하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였다 — 빌 2:17, 사 9:13, 엡 3:2.
- I.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가정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병원이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학교임을 보여 주었다 — 엡 2:19, 살전 5:14, 고전 14:31.

X. “나는 우리가 이러한 목양의 부담을 받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활력 그룹, 71쪽) — 비교 시 22-24편(영어 회복역 22편 1절 각주 1과 24편 1절 각주 1).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임

요한복음에는 21장이 있지만 사실상 20장으로 끝을 맺는다. 이 책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가 되시어 육체를 입은 한 사람이 되시는 것으로 시작하여(1:1-14),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는 것으로 마친다(20장). 따라서 21장은 부록임에 틀림없다. 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더욱 내재적으로 말하자면,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이다. 21장이 없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사도들의 땅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전체 요한복음을 완결한다.

###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과, 그분께 다른 양들(이방인 믿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그들(유대인 믿는 이들)과 연결되도록 이끌어 한 목자 아래 있는 한 양 떼(한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 주셨다.

###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서

주님의 목양은 먼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다(마 9:36).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달리며 내버려진 모습을 보셨다. 그 양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흩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선민의 목자이신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신 분에게 하나님의 양을 돌보도록 열두 사도들을 임명하라고 말씀하셨다(10:1-6).

##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주님의 목양은 두 번째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는데(벧전 5:4), 이는 결국 그분의 몸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 목양하고 계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목양하고 계신다.

###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을 때, 한번은 그분께서 나타나시어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즉 그분께서 하늘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다(요 21:15-17). 목양하는 것은 먹이는 것을 포함하지만, 또한 먹임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 떼를 돌보는 것이다.

###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킴

이것은 하나님의 양 떼,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키는 것이다.

### 목양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것을 확증한다.

#### *장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함*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게 했다. 그때 그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긴 말씀을 전했다.

#### *사나운 이리들이 양 떼를 아끼지 않음*

바울은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행 20:29)라고 말했다. 이 양 떼는 교회이다.

### 양들의 큰 목자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영원한 언약은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인 한 양 떼를 얻기 위한 신약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목양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큰 목자가 되게 하셨다.

### 베드로는 주님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라는 그분의 위임에 깊은 인상을 받음

####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믿는 이들에게 말함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아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말하였다(벧전 2:25).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 떼를 목양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일들과 그들의 내적 존재인 그들의 혼을 돌보시는 것을 포함한다. 그분은 그들의 혼을 감독하심으로 그들의 혼에 관련된 것들을 돌보신

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과 상태를 감독하시고 살피신다.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의 복지를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의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신다.

### 장로들에게 양 떼를 목양하도록 권유함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권유하였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신실한 장로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벧전 5:1-4).

###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분의 몸으로 귀결되는 그분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아가에서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적과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일은 심지어 아가에서도 언급된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찾고 추구하는 이를 목양하신다.

### 만족과 안식을 위해 주님께서 그분의 양 떼를 먹이심

아가 1장 7절 상반절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만족을 위해) 양 치는 곳과 (안식을 위해)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라고 말한다.

###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감

목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반응한다.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아 1:8하). 목자장이신 주님 아래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다. 많은 목자들은 그들이 사는 곳인 그들의 장막 곁에서 그들의 염소 새끼를 먹인다.

### 백합화 가운데 그분의 양 떼를 먹임

아가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라고 말한다. 주님은 그분을 추구하는 백합화 같은 모든 이들이 자라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목양하신다.

### 목양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함

아가 6장 3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라고 말한다.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요한복음 21장은 충분하고 완전한 결말임

요한복음 21장이 없다면 요한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한 결말을 갖지 못한다.

###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목양하는 길을 취함

내가 처음에 대만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그곳은 작고 황량한 섬이었다. 어느 날 주님은 타이베이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철도 노선을 따라가면서 성도들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방문 후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대만이 주님의 회복을 위해 아주 좋은 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담을 받아 1949년 8월 1일 특별 집회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다른 교파들로부터 약 사오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집회 첫날에 왔는데, 이들은 중국 본토를 떠나 대만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여기에서 한 종류의 음식, 곧 그리스도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들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참되게 추구하는 이들만 왔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목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방문하도록 그들의 이름을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만에서의 일의 시작 때부터 우리는 목양을 실행했다. 우리가 큰 복음 집회를 열었을 때, 우리는 약 오륙백 명의 명단을 얻을 수 있었다. 합당한 돌봄을 위해 우리는 모든 이름들을 나누어 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되고 합당한 방문자를 원했다. 사람들을 방문할 때,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참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공허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사람들을 방문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목양의 길은 그들을 따뜻하게 했다. 대만에서의 교회생활은 약 삼사백 명의 믿는 이들로 시작되었지만, 사 년이 지난 뒤에 사만 명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사역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원받지 않고 합당한 목양과 합당한 돌봄에 의해 구원받았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1949년에 대만에 가기 전에 나는 엔타이에 있었다. 나는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고 주중에는 연장한 형제와 함께 새로운 이들을 방문했다. 우리는 각 가정으로부터 따뜻하게 환영받았다. 그들은 우리가 왔을 때 그들의 친척들을 모아 놓았다. 얼마 되지 않아 엔타이에 참된 부흥이 있었다. 복음은 나 자신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 의해 각처로 전파되었다.

나는 또한 집회소에 부역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교통을 위해 이삼십 명의 성도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반년이 채 못 되어 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초대했다. 그 당시에 엔타이에 있는 교회에는 적어도 오륙백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이런 종류의 목양은 온 교회를 분발시켰다. 나는 장로들이 집회소를 식당으로 사용하여 교통을 위해 그곳에 성도들을 초대하기를 바란다. 장로는 목양을 목적으로 매일 적어도 한 사람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와 친근한 사람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하게 해야 한다. 엔타이에 있는 부흥은 이런 종류의 목양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목양은 효과가 있다. 우리는 명성을 얻기 위해 큰 연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이끌리고 때려져서 우리의 말을 듣겠지만, 그 후에는 누가 그들을 돌보는가? 큰 복음 운동은 효과가 없다. 어떤 곳에서 이것이 이미 검증되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큰 복음 집회를 열었지만, 결국 그들 중 많은 이가 교회 안으로 이끌리지 못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집회에서 간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교회에 이끌리게 하지 못한다. 어떤 이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집회에 참석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작은 활력 그룹뿐이며, 활력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목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이러한 목양하는 길보다 더 유력한 다른 길은 없다.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는 활력 그룹에서 건강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감독인 장로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가르침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다. 장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이어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잘 인도하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두 배로 존대하는 것은 신실한 장로들, 특히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물질적인 공급을 가리킨다.

활력 그룹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신언자들로서 신언자의 직분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들의 자격을 갖고 있다. 모든 아들은 말하는 이

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즉 개인적인 아들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히 1:2).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말하는 이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다섯 가지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창조, 육체 되심, 어린양, 그 영, 사다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설명할 때 그들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다른 때 우리는 사다리로서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시고 땅을 하늘과 연결하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 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의 아들이시다(요 3:14).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행 7:56).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등잔대들을 손질하고 계시며(1:13),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은 대환난이 끝날 무렵에 믿는 이들을 수확하시기 위해 구름 위에 앉아 계실 것이다(14:14).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사람의 아들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마 26:64). 마태복음 25장 31절은 그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영원 안에서 그분은 이 우주의 사다리로서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다(요 1:51).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분발시킬 것이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말씀에 수고해야 한다. 수고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우리는 어떻게 신언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말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란다. “주님, 저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먹이고 목양하고, 사람들을 한 양 떼로 모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주님은 목양에 관하여 ‘먹이다’, ‘목양하다’, ‘양 떼’라는 세 단어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21:15-16)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또한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10:16)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양들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한 양 떼로 함께 연결될 이방인 믿는 이들이다. 주님은 여기에서 ‘양 떼(flock)’라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하셨다. 나는 또한 이 단어를 ‘양 떼를 이루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하고 싶다. 우리는 먹이고 목양하고 양 떼를 이루기를 배워야 한다. 모든 교회들은 함께 섞일 수 있도록 어떻게 양 떼로 함께 모이든지 배워야 한다. 양 떼를 이루는 분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 굴복되고 확신을 가지며 영양 공급을 얻고 분발될 것이다.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이 목양받고 분발될 수 있도록 함께 양 떼를 이루어야 한다.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앞장서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73-182쪽)*